

중국의 건축匠人들

Chinese Architects

韓東洙/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

by Han, Dong-Soo

1. 서언

이 글은 중국의 역대건축장인들에게 대한 간략한 고찰로서 여기서 다룬 것은 중국 건축장인의 시조라 일컫는 노반에서부터 근·현대의 주요 인물에 이르는 모두 34명에 대한 약력이다. 이들 34명은 어떤 객관적인 선별기준에 의하여 추출된 것은 아니고 단지 필자의 수중에 있는 자료(사전류의 서적)를 중심으로 하여 뽑아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분포의 폭이 매우 넓으며 분야도 토목, 조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건축적 의미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글이 이들 사이의 어떤 종적, 횡적인 관계를 연관지어 다룬 것은 아니며 단지 인물에 대한 약력의 나열일 뿐이다.

한 나라의 건축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건축물 자체 뿐만 아니라 그 건축의 설계, 영건을 주관했던 사람들 즉,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른바 건축가들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서양의 저명한 건축가들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며 정작 우리의 건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지도 모를 이들 중국의 건축가에 대하여 무관심한 우리 현실에 다소나마의 지식을 제공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중국에서 영건활동과 관계된 장인들은 물론 여기에 언급한 것보다 훨씬 많이 역사상 출현하였다는 것은 광대한 국토와 인구, 수 많은 유물, 유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관련기록의 부족과 그들에 대한 과거 중국 지식인의 인식 부족으로 그들의 행적을 일일이 알아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과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 백과사전 편찬부에 근무했던 필자도 당시 사전에 필요한 한국건축관계 인물의 항목을 선정하여 각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집필을 의뢰하면서 마찬가지로 자료부족으로 많은 곤란함을 겪은 경험이 있다. 불행중 다행으로 근·현대의 건축가들의 경우는 비교적 나은 편이었으나 조선시대 이전의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뿐 만 아니라 이 사전의 항목선정 규정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할 수도 없었다. 최근들어 몇몇 분들의 연구에 의하여 조선시대의 목수들과 영건조직, 근·현대의 목수들에 대한 계보의 파악이나 행적을 다룬 논문들이 나왔다. 필자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건축에 종사했던 장인들의 행적을 추적해 봄으로써

그들의 건축이념과 실천의지를 검토하고 오늘의 건축역사 연구에 참고로 삼아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이 글에는 <중국고대과학기술명인전>에 실려 있는 노반을 비롯한 이춘, 유호, 심팔 등 인물 4인에 대한 초상화를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나머지 고대 인물에 관한 시각자료는 필자의 자료부족으로 수록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2. 역대 주요 건축관계 장인들에 대한 약력

서술순서는 대상인물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배열하였고 생·몰년이 불확실한 경우는 그 활약시대에 의거하여 배열하였다.

1) 고대~북송이전까지의 시기

(1) 노 반(魯班 : ? ~ ?)

춘추시대의 건축가. 노나라 정공 3년(定公三年 : B. C. 507)에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본은 공수씨(公輸氏)이고 이름은 반(般)으로 노나라 사람이다. 반(班)과 반(般)은 동음이므로 후세의 사람들이 노반(魯班)이라고 불렀다. 그는 다재다능하여 건축, 목공, 기계 등의 방면에서 대량의 발명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가 발명한 것으로는 건축용 곡척(曲尺), 대패, 송곳, 삽과 군사용의 운계(雲梯 : 성곽공격용의 높은 사다리), 갈고리 등이 있다. 또한 조각 예술에도 뛰어나 <열자신론,



(그림 1) 노반의 초상

지인편(列子新論, 知人編)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그가 조각한 봉황은 미술품의 최고봉에 이른 것이었다. 역대의 건축장인들은 모두 그를 “조사(祖師)”로서 존중한다.

(2) 장소유(蔣少游 : 약 450~501)

북위의 건축가. 청주(靑州) 낙안군(樂安郡) 박창현(博昌縣 : 지금의 산둥성 博興이다) 지방의 사람이다. 사족(士族) 출신으로 후에는 북위의 수도인 평성(平城)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다재다능하고 박학하였으며 그림을 잘 그렸다. 특히 영조방면에 정통했다. 장작대장(將作大匠), 태상소경(太常少卿), 도수사자(都水使者)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낙양의 금읍성(金鋪城)과 화림원(華林園)의 개건을 주관하였다. 북위의 낙양 부흥에도 크게 공헌을 하였다.

(3) 우문개(宇文愷 : 555~612)

수대의 건축가. 자는 안락(安樂), 무천(武川 : 지금의 하남성 남양) 지방의 사람이다. 수대 초에 태자좌사자(太子左庶子) 겸 영종묘부감(營宗廟副監)으로서 종묘의 영건을 맡았다. 개황2년(開皇二年 : 582년) 영신도부감(營新都副監)으로 임명되어 다시 최대의 도시인 신도읍 대흥성(大興城 : 唐代의 장안이다)의 계획을 하였다. 이 도시는 주작대로(朱雀大路)를 중축선으로 하여 도로와 가방(街坊)의 구획이 대칭적이고 가로가 넓으며 수목을 널리 심어 웅대한 장관을 보여 주었다. 대업원년(大業元年 : 605년)에는 동도(東都)인 낙양(洛陽)의 영건 책임을 맡았다. 여기서 중축선을 중심으로 한 대칭적인 도시를 만들지 못하고 비교적 지형에 치중하여 건설하였으나 똑같이 양호한 효과를 얻었다. 대업4년(608년)에는 또 장성(長城)의 수축을 위한 책임을 맡아 유림(榆林)에서부터 정양(定襄)까지 (모두 산서지방에 속한다) 견실한 성벽을 쌓았다. 장작소장(將作少匠), 장작대장(將作大匠), 공부상서(工部尚書) 등의 관직에 차례로 올랐다. 저서로는 <동도도기(東都圖記)> 20권, <명당도의(明堂圖議)> 2권, <석의(釋疑)> 1권 등이 있으나 현재는 모두 전하지 않는다

(4) 이 춘(李春 : ?~?)

수대의 건축가이자 조소가. 대업년간(大業年間 : 605~618)에 세계 최초로 하나의 아치로 된 석조교량 조주교(趙州橋 : 安濟橋라고도 한다)의 건설을 주관하였다. 당대 개원10년(開元十年 : 725년) 중서령(中書令)이었던 장가정(張嘉貞)은 <안제교명(安濟橋銘)>에서 이 춘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청대 광서년간(光緒年間)의 <조주지(趙州志)> 권1에서도 이 춘이 만든 이 다리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다리의 난간 영주(楹柱)에는 용수(龍獸)의 형상을 올려 놓았는데



(그림 2) 이춘의 초상

조각이 신비롭고 사실적이다.

(5) 염립덕(閻立德 : ?~656)

당대의 건축공정가, 예술가. 자는 양(讓)으로 용주(雍州) 만년(萬年 : 지금의 섬서성 서안) 사람이다. 출생연대는 미상이다. 공정세가(工程世家)의 출신으로 부친 염비(閻毗)는 수대에 장작소감(將作少監)을 지냈으며 장성(長城)의 수축 및 운하의 복단을 파는 작업 등 중요 공정을 주관했다. 그는 일찌기 가업을 이어 받아 부친의 지도를 받았다.

당 고조(高祖) 무덕연간(武德年間)에는 상의(尙衣)를 지냈으며 태종(太宗) 정관연간(貞觀年間)에는 장작소감(將作少監)을 역임하는 한편 태안현남(太安縣男)에 봉해졌다. 그 후 고조(高祖)의 산릉(山陵)을 영건하라는 명을 받들어 장작대감(將作大監)으로 올라갔다. 정관17년(貞觀十七年) 당군이 고구려에 출정을 하였을 때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아 병사들의 진군이 정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취미(翠微), 옥화(玉華) 두 궁전의 건설에 공이 있어 공부상서(工部尚書)로 승진하였다. 정관23년 태종이 죽자 소릉(昭陵)을 영건하였다. 그가 주관하여 수건한 옥화궁은 산에다 지었으며 정전에만 기와를 입히고 나머지 건물은 모두 초가지붕을 사용하여 매우 소박한 분위기를 띠어 당대 건축의 또 다른 풍격을 보여주었다. 말년에는 장안성의 외곽과 성루를 수건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사후에는 이부상서(吏部尚書), 개주도독(開州都督)에 추증되었다. 그는 공예와 회화에도 조예가 깊어 당시 황후가 사용하는 복식의 장식들을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인물, 수석, 금수 등을 잘 그려 동생 염립본(閻立本)과 함께 저명한 화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다.

(6) 유 호(喻皓 : ?~989)

오대말 북송초기의 건축가.

일명 유호(喻浩)라고도 한다. 항주(杭州 : 지금의 절강성에 속한다) 지방의 사람이다. 일찌기 항주의

도과장(都科匠)을 역임하였으며 탑의 건설에 능통하였다. 그가 북송의 단공2년(端拱二年: 989년) 개봉에 있는 개보사(開寶寺) 영감탑(靈感塔)의 영건을 주관할 때, 비례척도가 정확한 모형을 제작하여 세부를 고려함으로써 팔각형 목탑의 곡선이 점차 안으로 축소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탑의 외관이 웅대하고 아름다우며 소박하고 육중하게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은 서북풍이 많으므로 탑이 장기간에 걸쳐 받게 되는 바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사를 고려하여 탑의 중심(重心)이 서북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항풍력(抗風力)에 유의하였다. 아울러 탑 북측에는 하류가 있어 지하수의 침투로 탑의 기초가 쉽게 가라앉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북측 표고를 높게 함으로써 당초 탑을 경사지게 건설하였으나 붕괴되지 않았다. 저서로는 중요한 건축전문서적인 <목경(木經)> 3권이



(그림 3) 유호의 초상

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7) 심괄(沈括: 1031~1095)

북송의 과학자이자 정치가. 자는 존중(存中)으로 전당(錢塘: 지금의 절강성 항주이다) 지방의 사람이다. 신종(神宗) 시기에 왕안석(王安石)의 변법운동(變法運動)에 참여하였다. 한림학사(翰林學士), 권삼사사(權三司使)의 벼슬에 올랐다. 학문이 깊고 다재다능하였다. 토목건축 분야에서의 주요한 공헌으로는 조정의 명을 받들어 희녕9년(熙寧九年: 1076년)부터 원우2년(元祐二年: 1087년)까지 천하군현도(天下郡縣圖)를 완성하였다. 여기에는 한쪽의 대도(大圖)와 한쪽의 소도(小圖) 및



(그림 4) 심괄의 초상

분로도(分路圖) 18쪽이 있는데 이를 <수령도(守令圖)>라고 부른다. 말년에는 윤주(潤州: 지금의 강소성 진강)지방의 “몽계원(夢溪園)”으로 이사하여 필기체(筆記體)로 자신의 탁월한 식견을 담은 <몽계필담(夢溪筆談)> 3권과 <속필담(續筆談)> 1권을 지었다. 그 가운데 자연과학의 부분은 중국고대, 특히 북송시기의 과학기술(土建을 포괄하는)이 이룩한 업적을 총괄한 것이다.

(8) 이계(李誠: 1035~1110)

북송의 건축가. 자는 명중(明仲), 정주 관성(管城: 지금의 하남 정주이다) 지방의 사람이다. 부친은 정남공(鄭南公)으로 왕안석의 신법을 추진하였고 관직은 용도각(龍圖閣)의 직학사(直學士)였다. 가학(家學)이 깊고 다재다능하였으며 서화에 출중했다. 작은 전서(篆書)로 쓴 문장 <중수주작문기(重修朱雀門記)>와 <오마도(五馬圖)>그림은 휘종(徽宗)의 찬사를 받았다. 초기에는 조주(曹州)제음(濟陰: 지금의 산둥 조현이다)의 현위(縣尉)였다. 원우 7년(元祐七年: 1092년)개봉에 장작감(將作監)으로 파견되어 13년간 재직했다. 주부(主簿), 승(丞), 소감(少監)에서부터 정감(正監)으로까지 승진하였다. 부친이 죽은 후에는 또 호주(虢州)의 지주(知州)로 부임하였다. 일찌기 오왕저(五王邸), 용덕궁(龍德宮)의 채화택(채華宅), 구성전(九成殿), 주작문(朱雀門), 태묘(太廟), 자흠태후불사(玆欽太后佛寺), 벽옹(辟雍), 개봉부해(開封府廡)의 영건을 주관하였다. 아울러 명을 받들어 <영조법식(營造法式)>을 증수하였다. 저서로는

《속산해경(續山海經)》10권, 《고전설문(古篆說文)》10권 등이 있으나 전해지지 않는다.

2) 원대~청대까지의 시기

(1) 유병충(劉秉忠: 1216~1274)

원대의 도시계획가이자 저명한 학자. 자는 중희(仲晦), 형주(邢州: 지금의 허북성 邢臺)이다. 지방의 사람이다. 어려서는 승려생활을 하였으며 홀필렬(忽必烈)의 막료를 역임하였다. 원대 세조(世祖) 지원4년(至元四年: 1267년)에 국도인 대도(大都)의 계획과 건설을 주관하여 지원8년(1271년)에 완성시켰다. 이 도시는 규모가 방대하고 구획이 정비되었으며 당시 세계에서 저명한 대도시를 이루었다.

(2) 채 신(蔡信: ?~1438)

명대의 저명한 건축장사(建築匠師), 남직예(南直隸) 양호현(陽湖縣: 지금의 강소 武進)이다. 지방의 사람이다. 목공(木工) 출신이다. 홍무연간(洪武年間)에 남경으로 가서 공역(工役)을 맡았다. 영락4년(永樂四年: 1406년) 명의 성조(成祖)가 북경으로 국도를 이전하여 영건할 때, 영건공정을 지도 감독하였다. 선덕연간(宣德年間)에는 경릉(景陵)의 영건에 참여하여 지휘를 하였다. 공헌이 탁월하여 관리로 발탁되어 영선소정(營繕所正), 영선청리사주사(營繕清吏司主事), 공부우시랑(工部右侍郎)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3) 괴 상(翻祥: ?~1481)

명말의 건축가. 오(吳: 지금의 강소성 소주)이다. 지방의 사람이다. 부친은 당시 유명한 목장(木匠)이었다. 그는 부친의 업을 이어받아 평생 동안 궁전(宮殿), 묘사(廟社), 부제(府第), 능침(陵寢)을 짓는 영건활동에 종사하였다. 일찌기 공부시랑(工部侍郎)을 역임하였다. 영락15년(永樂十五年: 1417년)에는 북경의 궁전을 영건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정통년간(正統年間)에는 자금성 안에 있는 태화, 중화, 보화의 삼대전을 중건하는 책임을 또 맡았다. 천순말년(天順末年)에는 유릉(裕陵: 明十三陵의 하나이다)을 계획하고 지었다. 건축분야에서의 공헌이 아주 크다. 그러므로 일명 괴노반(翻魯班)이라고 불리운다.

(4) 탕동결포(湯凍結布: 1385~1464)

명대의 건축가. 라마교 갈거과 라마(噶魯派喇嘛)이다. 본명은 존추상포(尊追桑布)이고 장족(藏族)의 후예이다. 장족의 희극(戲劇)을 공연하여 모금한 돈으로 서장 아노장포강(雅魯藏布江)의 철색교(鐵索橋)를 수건하여 장족(藏族)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민간에 줄곧 그에 관한 전설이 유포되고 있고 그의 전기(傳記) 각본(刻本)도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 장족의 희극을

연기하는 연기자 및 장족의 철목공장(鐵木工匠) 등은 모두 그를 조사(祖師)로 받들고 있다.

(5) 장남양(張南陽: ?~?)

명대의 조원가. 자는 산인(山人), 처음의 호는 소계자(小溪子)였으나 후에 와석생(臥石生)으로 바꾸었다. 상해지방의 사람이다. 부친은 화가로서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그림을 배웠다. 그 후 회화의 수법으로 정원에 가산(假山)을 만들고 지형을 다듬으며 대량의 황석(黃石)을 쌓는 것, 혹은 소량의 산석(山石)을 배치하는 방법, 작은 면적으로도 천산중첩의 미감을 표현하는 방법등을 시도하였다. 일찌기 소남(蘇南)의 명원(名園)을 설계하고 참여하여 만들었다. 그가 만든 것으로는 상해에 있는 반운단(潘允端)의 예원(豫園), 진소온(陳蘇蘊)의 일섭원(日涉園), 태창(太昌)에 있는 왕세정(王世貞)의 업원(弁園) 등이 있다. 진소온이 쓴 《장산인전(張山人傳)》에 의거하면 그는 정덕12년(正德十二年: 1517년) 이전에 출생하였다.

(6) 서 고(徐杲: 1522~1565)

명대의 저명한 건축장사(匠師)로 목공(木工) 출신이다. 북경의 황사성(皇史宬), 태묘(太廟), 경사의성(京師外城), 태현도전 영수궁(太玄都殿永壽宮) 등의 중대공정에 참여하거나 지휘를 하였다. 가정36년(嘉靖三十六年: 1557) 궁성이 불타버린 후 삼대전(三大殿) 및 봉천문(奉天門)의 중건을 계획하고 주관하였다. 기술의 수준이 아주 높고 재료를 잘 절약함으로써 공사경비를 줄였다. 광록사 서정(光祿寺暑正), 태부상승(太仆寺丞), 관공통정사(管工通政使), 공부시랑(工部侍郎), 공부상서(工部尙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7) 문진형(文震亨: 1585~1654)

명말의 서화가이자 조원가. 자는 계미(啓美)이고 소주부 장주현(長州縣) 지방의 사람이다. 명대의 저명한 화가 문정명(文徵明)의 증손이다. 저서로는 《장물지(長物志)》, 《이노원기(怡老園記)》, 《향초택지(香草垞志)》 등 조원론에 관한 것이 있고 작품으로는 소주의 향초택(香草垞)이 있다.

(8) 계 성(計成: 1582~?)

명대말기의 조원가(造園家). 자는 무불(無否), 호는 부도인(否道人)으로 오강(吳江: 지금은 강소성에 속한다)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신기한 것의 수집을 좋아하고 시와 그림에 능숙했다. 일찌기 강남의 여러 곳에 원림을 영건하였다. 말년에는 강남일대의 조원 수법과 경험을 총괄한 《원야(園冶)》3권을 지었다. 이것은 중국 고대에 씌여진 조원에 관한 걸출한 논저의 하나이다.

(9) 장남원(張南垣 : 1587~약 1671)
 명말청초의 조원가, 이름은 연(漣)이고 자는 행(行)이다. 화정(華亭 : 지금의 상해시 송강이다) 지방의 사람이다. 이후 가흥(嘉興 : 지금의 절강에 속한다)으로 이주하였다. 어려서 그림을 좋아하고 사람의 모습을 잘 묘사하였다. 특히 누석누산(墨石墨山)을 잘하여 동기창(董其昌)과 진계유(陳繼儒)의 찬사를 받았다. 원림을 꾸미는 능력이 교묘하고 구도가 정미로우며 평강소피(平江小坡), 수석교융(水石交融)등의 이론을 주장하여 원림으로 하여금 자연산수와 혼연일체가 되게 하였다. 자식과 조카들이 모두 그 업을 계승하였으며 특히 자식도 똑같은 명성을 누렸다.

(10) 뇌발달(雷發達 : 1619~1693)
 명말청초의 건축가. 건창(建昌 : 지금의 강서지방이다)지방의 사람이다. 일찌기 북경 고공의 태화전등의 중건사업에 참여하였다. 그의 집안은 후대로 7대에 걸쳐 건축의 업을 이어받아 공부양방(工部樣房)에서 궁전의 영조작업을 2백여년간 주관하였다. 예를 들어 원명원과 이화원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 승덕의 피서산장 및 청대 황실능침의 지하궁전등은 모두 이 뇌씨의 후손들이 설계하고 지은 것이다. 이들 집안의 작업특징은 시공에 앞서 모형을 만드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양식뇌(樣式雷)”라고 부른다.

(11) 양 구(梁九 : ?~?)
 명말청초의 건축가. 순천부(順天府 : 지금의 북경시이다)지방의 사람이다. 명대에 궁전을 짓는데 능한 장인 빙교(馮巧)를 스승으로 삼아 그 기술을 전수받았다. 스승이 죽자 동관(冬官)에 적을 두고 영조의 일을 대신하였다. 청대 강희34년(康熙三四年 : 1695년)태화전의 중건을 주관하였다. 이 때 그는 중건하려고 하는 태화전 및 주변의 부속건축물을 포괄하는 세밀한 1 : 10의 나무모형을 직접 제작하였고 모형에 의거하여 시공을 함으로써 오차가 거의 없었다. 당시 황궁 내에 흥건한 궁전, 누각은 대부분 그의 책임하에 지어졌다. 70여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3) 아편전쟁 이후 (1840)

(1) 여언직(呂彥直 : 1849~1929)
 근대 건축가. 자는 중의(仲宜). 또는 고우(古愚)로 산둥 동평(東平) 지방의 사람이다. 어려서 글씨와 그림에 모두 뛰어났다. 1913년 청화학교(淸華學校)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처음에는 전기에 관한 공부를 하였으나 후에 전공을 건축으로 바꾸었다. 10년 뒤 귀국하여 상해은행公會(上海銀行公會)등의 건축을 설계하였다. 그 후 언기건축사무소(彦記建築事務所)를 운영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남경의 중산릉과 광주의 중산기념당이 있다. 설계시에는 현대건축의

과학기술을 과감히 사용하였고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형식을 결합시켰다.

(2) 첨천우(詹天佑 : 1861~1919)

중국근대의 걸출한 토목공정사(土木工程師)이자 중국철로공정의 선구자. 자는 권성(眷誠), 강서 무원현(婺源縣) 지방의 사람으로 광둥 상해에서 출생하였다. 관비로 미국 유학을 떠나 1881년에 예일대학을 졸업하였다. 귀국 후 복주선정국(福州船政局), 광동박학관(廣東博學館), 광동해도수륙사학당(廣東海圖水陸師學堂)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05년 4월에는 경장철로(京張鐵路) 총공사(總工師) 및 회판(會辦)으로 부임하여 중국이 독자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철로인 경장철로의 수건을 주관하였다. 열차의 연결기를 발명하여 세계철로 사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지금의 거용관(居庸關) 부근인 청룡교(靑龍橋) 기차역에는 “첨천우동상”이 세워져 있어 세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3) 장 준(莊俊 : 1888~현재)

근대의 건축가. 자는 달경(達卿), 절강성 영파(寧波) 지방의 사람이다. 1908년 상해의 남양중학(南洋中學)을 졸업하고 당산의 교통대학(交通大學)에 진학을 하였다. 1910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1914년 일리노이대학 건축공정과를 졸업하고 건축학사를 받았다. 1914년부터 1923년까지 청화학교 건축사(建築師)를 역임하였으며 1923년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콜롬비아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다. 1925년~1949년에는 상해에서 장준 건축사사무소를 경영하며 교통대학과 대동대학에서 강의도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되고 난 이후에는 중국건축공사와 건축공정부 설계총국 총공정사를 역임하였다. 퇴임 후에는 <영한건축공정명사>를 편집하였다.

그는 청화학교 건축사 시절 이 학교의 대강당, 도서관, 체육관, 공정관, 고학관 등을 설계하였다. 상해에서 사무소를 경영하면서는 상해 및 한구(韓口)의 금성은행, 하얼빈, 대련, 청도의 교통은행 등을 설계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가장 일찍 건축사무소를 운영한 건축가 중의 하나이며, 1927년 중국건축사학회(中國建築師學會)의 성립 이후 연속으로 회장에 당선되었다.

(4) 능홍훈(凌鴻勳 : 1894~1981)

토목공정전문가이자 교육자. 자는 죽명(竹銘), 광주에서 태어났다. 1915년 상해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교량공사에서 실습을 하며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다. 1918년 귀국 후 대리교수, 교수, 대리교장, 교장을 역임하고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는 철도부와 교통부 기정(技定)을 역임하였다. 1948년

중앙연구원 원사가 되었으며 50년에 대만으로 건너가 대만대학 교수에 재직하였다. 그 후 대만석유공사 회장에 부임하였으며 1971년 퇴임 이후 교문직에 있었다. 또한 대만의 석문(石門)댐 건설준비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다. 그는 일생을 토목공정에 종사하였으며 주로 철로공정의 교학과 수축에 애썼다. 저작으로는 <철로공정학>, <중국철로개론>, <교량학>, <중국철로지> 등이 있다.

그는 초기에 미국에서 중국공정학회를 조직하는 발기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그 후 이 학회는 중국 국내의 중화공정사학회와 합병되어 중국공정학회가 되었다. 1970년에는 대만의 중국토목공정학회의 명예회원으로 피선되었다.

(5) 모이승(茅以升 : 1896~현재)

중국의 교량학자이자 교육자. 원명은 이승(以昇), 자는 당신(唐臣), 강소성 진강(鎮江) 지방의 사람이다. 1916년 당산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 미국의 코넬대학에서 토목공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21년 <교량결구차 응력연구(橋梁結構次應力研究)>로 이공학원(理工學院)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교통대학 당산학교, 동남대학, 북양공학원등의 학교에서 교수, 주임, 교장,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전당강(錢塘江)의 교량공사 처장과 교통부 중국교량공사 총경리 겸 총공정사를 지냈다. 1948년에는 중앙연구원 원사가 되었으며 1949년 이후에는 중국교통대학 교장, 철도연구소 소장, 무한장강대교 기술고문위원회 주임위원을 역임하였다. 1955년에는 중국과학원 학부위원, 기술과학부 부주임에 당선되었다.

그는 교량공정과 구조역학, 토역학(土力學) 방면의 공정실천 및 과학연구와 교육에 오랫동안 종사하였다. 그는 일찌기 중국이 자력으로 건설한 최초의 현대식 아치교인 전당강 공로철도의 두 교량건설을 주관하였다. 저작으로는 <전당강교>, <무한장강대교>, <모이승선집>, <중국고교기술사(中國古橋技術史)>, <중국고교역신교(中國古橋與新橋)> 등이 있다.

(6) 유둔정(劉敦楨 : 1897~1968)

건축역사학자이자 교육자. 자는 사능(士能), 호남성 신녕(新寧) 지방의 사람이다. 1913년 관비로 일본에 유학하여 1921년 동경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1922년 귀국하여 1925년 호남대학, 소주공업건축과에 재직하며 중국의 건축교육을 개척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1930년 중국영조학사에 가입하여 중국전통건축문화의 발양을 주장하였다. 1932년 북경으로 가 중국영조학사의 문헌부 주임에 부임하여 양사성과 함께 고건축의 조사를 주관하였다. 1937년 이후 영조학사를 따라 계속적으로 고건축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943년 중앙대학 건축과의 주임, 교수 그리고 중경대학 교수직을 겸임하였고, 중앙대학

공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1956년에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60년에는 남경대학 건축과 주임을 맡았다. 저서로는 <중국주택개설>, <소주고전원림>, <중국고대건축사>, 그리고 <유둔정문집> 4권이 있다.

(7) 월 심(越深 : 1888~1978)

근대의 건축가. 자는 연여(淵如), 강서성 무석(無錫) 지방의 사람이다. 1919년 청화학고를 졸업하고 1920년 미국으로 가서 펜실바니아 대학의 건축과에서 수학하며 1923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1923년~1926년 뉴욕과 펜실바니아, 마이애미 등지의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 후 유럽의 건축을 돌아보고 1927년 귀국하여 대 상해시 중심계획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상해의 팔선교청년회(八仙橋青年會) 빌딩의 설계책임을 맡았다. 1928~1930년에는 범문조(範文照)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30~1931년에는 월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그 후 1931년에는 진식(陳植)과 함께 사무소를 개설하고 1932년에는 진식, 동호(董騫)와 더불어 화개(華蓋)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 사무소에서 1952년까지 200여개의 공정을 처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화동(華東) 건축설계공사 총공정사, 중앙건축공정부 설계원 총공정사, 화동건축설계원 및 그 후신인 상해공업건축 설계원 부원장겸 총공정사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중요한 설계공정을 조직하고 지도하였으며 설계사상에서는 개혁과 창조를 주창하였다. 또한 건축조형의 완전성을 추구하였다.

(8) 동 호(董騫 : 1900~1983)

근대의 건축학자이자 건축가, 건축교육자. 자는 백잠(伯潛)이고 만주족이다. 1925년 청화학고를 졸업한 이후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의 건축과에 유학하였다. 유학 기간 중 전미국건축과 학생 설계경기에서 2등(1927년)과 1등(1928년)에 입상을 하였다. 1928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펜실바니아 및 뉴욕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2년간 일을 하였다. 1930년 유럽의 건축고찰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1930~1931년 동북대학 건축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32~1952년 상해에서 진식, 월심과 함께 화개 건축사사무소를 조직하고 회도실(繪圖室)의 책임을 맡았다. 1944년부터는 중경과 남경에서 중앙대학공학원 건축과 교수를 겸임하였다. 1949년에는 중앙대학이 남경대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1952년에는 남경대학 공학원이 남경공학원으로 바뀌었다. 동호는 서거할 때까지 줄곧 이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다. 그가 참여한 공정은 100여개로서 주요한 것으로는 남경의 수도반점(首都飯店), 상해의 대희원(大虛院) 등이 있다.

그는 설계창작에서 인습과 모방을 반대하고 창신(創新)을 고수하였다. 작품은 비례가 엄격하고 질박하며 단정하다. 1930년에는 중국고전원림에 대한 연구와 조사, 답사 및 실측에 주력을 하였다. 저서로는

〈강남원림지〉, 〈Chinese Garden〉, 〈Foreign Influence in Chinese Architecture〉, 〈정(亭)〉 등이 있다. 말년에는 주로 건축이론과 역사교육에 힘을 써 〈신건축여유파(新建築與流波)〉, 〈조원사장(造園史綱)〉, 〈건축과기연혁〉, 〈근백년서방건축사〉, 〈동호화선(童鶴華選)〉, 〈동호소묘선(童鶴素描選)〉 등을 썼다. 논문으로는 〈중외분할(中外分割)〉, 〈북경장춘원서양건축〉 등이 있다.

(9) 조조강(趙祖康 : 1900~현재)

시정(市政)과 도로공정의 전문가. 자는 정후(靜侯), 상해시 송강현(松江縣) 지방의 사람이다. 1922년 교통대학 당산학교 토목공정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무한의 국민정부 교통부와 기좌(技佐), 기정(技正), 공무국장, 고문공정사등을 역임하였다. 1930년 미국 코넬대학 연구소에서 도로와 급배수공정을 공부하였으며 뉴욕주 교통국 도로공정처에 근무를 하였다. 귀국 후 1932년부터 전국경제위원회, 공로교통위원회, 교통부 등에서 전문위원, 처장, 국장, 고문 및 상해시 공무국장 겸 상해시 건설위원회 부주임, 계획건설관리국장, 부시장에 재직하였다. 현재는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으로 있다.

(10) 채방음(蔡方蔭 : 1901~1963)

구조역학의 전문가, 교육자. 강서성 남창현(南昌縣)에서 태어났다. 1925년 북경의 청화학당을 졸업한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 M. I. T. 대학에서 토목공정사 석사학위를 받았다. 1930년 귀국하여 동북대학에 재직하였고 청화대학에서는 토목공정과의 교수, 주임, 그리고 공학원원장등을 역임하였다. 구조역학 등의 과목을 20여년간 가르쳤다. 1949년 이후 중앙중공업부 고문공정사를 역임하였고 1956~1963년 사이에는 건축공정부 건축과학연구원 부원장겸 총공정사로 일했으며 중국과학원학부위원에 당선되었다. 주요 저작으로는 〈보통구조학〉, 〈변절면강구분석(變截面剛構分析)〉, 〈판량지이론여분석(板梁之理論與分析)〉 등이 있고 〈토목공정학보〉의 주편을 맡았었다.

(11) 양사성(梁思成 : 1901~1972)

건축역사학자이자 교육자. 광둥성 신회(新會)지방의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부친 양계초의 영향을 받아 중국문화를 열정적으로 애호하였다. 14세때 청화학당에 들어갔다. 1924년 미국으로 가서 건축학을 전공하였다. 1928년 귀국하여 동북대학 건축과의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1930년 영조학사의 법식부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고대건축의 조사, 실측, 연구 및 교학에 종사하였다. 1945년 이후 청화대학 건축과를 창설하였다. 중국건축의 서양화를 시종일관 반대하고 현대적인 새로운 기술과 기초 위에서 중국 민족형식의 새로운 건축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공산당 이후 인민영웅기념비와 양주 감진화상(鑒眞和尚)의 기념당 건립의 설계를 주관하였다. 저서로는 〈청식영조칙례〉, 〈건축설계참고도집〉, 〈중국건축사〉, 〈양사성 문집〉, 〈도설중국건축사〉(영문유고작임) 등이 있다.

(12) 양정보(楊廷寶 : 1901~1982)

근대의 건축가, 건축사, 건축교육자. 자는 인휘(仁輝), 하남성 남양현(南陽縣)사람이다. 1921년 청화학원을 졸업한 이후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 건축과에 유학을 하였다. 수업기간 동안 전미국건축과 학생설계경기에서 여러차례 우수상을 받았다. 1926년 유럽여행을 마치고 1927년 귀국하여 1923~1948년까지 기태공정사(基泰工程司)에서 설계책임자로 일을 하였다. 1940년부터는 중앙대학 건축과의 교수를 겸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이후에는 남경대학 공학원 건축과 주임, 남경공학원 건축과 주임, 부원장, 건축연구소 소장, 강소성 부성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3년부터 중국건축학회 제1, 2, 3, 4회 이사회 부이사장, 제5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55년 중국과학원 기술과학부 학부위원을 지냈다. 1957년, 1961년 국제건축사협회 부의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또한 제1회부터 5회까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대표를 지냈다.

1920년대 후반부터 남경의 중앙의원, 중앙체육관, 중앙연구원 지질연구소, 북경의 교통은행, 청화대학 도서관 확장건설 등을 설계하였다. 50년대 초에 설계한 북경의 화평빈관(和平賓館)은 중국현대건축설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중국 근·현대 건축역사상 크게 명성을 얻었다. 중국의 정서를 중시하고 중국전통의 경험과 수법을 결합하여 현대 중국건축의 품격을 창조하는 탐색 과정을 실천하였다. 건축교육에서는 학생의 기초지식 및 기본설계방법을 배양하는 실제적인 학습을 중시하였다.

1978년 〈종합의원건축설계〉를 주편하고 〈양정보수체화선〉, 〈양정보소묘선집〉, 〈양정보설계작품집〉 등이 출간되었다. 아울러 중국도시계획과 풍경환경계획설계, 고건축보호에 관한 논문이 있다.

(13) 진 식(陳植 : 1902~현재)

근대의 건축가. 자는 직생(直生)이다. 1923년 청화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 건축과로 유학을 갔다. 1927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27~1929년까지 펜실바니아와 뉴욕의 설계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다. 1929년 귀국 후 1931년까지 동북대학 건축과에 교수로 재직하였다. 1932~1952년까지 월십 및 동호와 설계사무소를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1938~1944년까지 상해의 지강대학(之江大學) 건축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상해의 제일상업은행 빌딩과 대화대회원(大華大戲院) 등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에는 지강대학 건축과 주임, 화동건축설계공사 총공정사, 상해시계획 건축관리국 부국장겸 총공정사, 상해시기본 설계위원회 총건축사, 상해시 민용건축설계원 원장겸 총공사를 역임하였다. 1982년에는 상해시 건설위원회고문, 1984년에는 상해시 성향건설계획위원회 고문을 지냈다. 1980~1983년까지는 중국건축학회 부이사장을 지냈으며 1983년 이후에는 고문직에 있다. 제3, 4, 5, 6회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는 건축창작이 반드시 환경, 군체, 기능에서 출발하여 민족품격과 지방특색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학적인 내용, 대중적인 방향, 민족적인 형식을 건축창작에 응용하였다.

(14) 임동염(林同炎 : 1911~현재)

미국국적의 화교로 구조공정전문가. 원명은 동염(同燦), 복건성 복주(福州)지방의 사람이다. 1931년 교통대학 당산공정학원 토목공정과를 졸업하고, 1933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46년 미국에 정주하여 1951년 미국국적을 얻었다. 1946~1976년 사이에는 버클리대학에 부교수, 교수, 구조공정부 주석 및 구조실험실 주임을 역임하였다. 1953년에는 임동염 설계사무소를 열었고 1967년 미국공정과학원 원사에 당선이 되었다. 1972년에는 임동염국제공사를 창설하고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미국에 응력(預應力)콘크리트학회를 창설한 사람 중의 하나이며 이 분야에서의 탁월한 업적과 공헌으로 많은 수상을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그를 “예응력콘크리트의 선생”이라고 부른다. 1972년과 1982년에는 홍콩의 중문대학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각각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미국에서 출판된 <결구공정수첩> <내진공정수첩> <콘크리트공정수첩> 및 다른 사람과 함께 쓴 <강결구설계>, <예응력콘크리트결구설계> 등이 있다.

(15) 유희선(劉恢先 : 1912~현재)

지진공정학자. 강소성 연화현(蓮花縣) 지방의 사람이다. 1933년 교통대학 당산공정학원을 졸업하고 1937년 미국의 코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상계철로(湘桂鐵路), 서곤철로(絳昆鐵路)등의 공정사를 역임하였고 절강대학, 서남연합대학의 토목과 교수를 지냈다. 1947년 다시 미국으로 가서 공정설계공사의 공정사로 근무한 뒤 1951년 귀국하여 청화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1952년 중국과학원 공정역학연구소를 창설하고 1954년 소장을 맡았다. 1984년에는 명예소장이 되었다. 1984년에는 중국과학원 기술과학부 학술위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교량공정의 설계와 지진공정의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하였으며 주요한 공헌은 지진공정학 방면의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진공정과 공정진동>이란 학술지와 <지진공정연구보고집>을

주편하였다.

(16) 이국호(李國豪 : 1913~현재)

교량학자이자 역학(力學) 전문가, 교육자. 광동성 매현(梅縣) 지방의 사람이다. 1936년 상해의 동제대학(同濟大學)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1940년 공학박사학위를 획득하고 1943년에는 독일교수박사학위를 얻었다. 귀국 후 1946년부터 동제대학 교수, 토목과 주임, 공학원 원장, 교무처장, 부교장, 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주로 현색교(縣索橋)의 정력(靜力)과 동력(動力)에 대한 분석방법의 연구에 종사하여 “현색교李”라는 별명을 얻었다. 50년대 중기부터는 무한의 강강교를 비롯한 각종 주요 다리건설의 기술고문을 맡았다. 1981년에는 국제교량 및 구조공정협회가 추천하는 10명의 저명한 국제교량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뽑혔다. 현재 동제대학과 가응대학(嘉應大學)의 명예교수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주석, 중국 토목공정학회 이사장, 중국토목공정학회 교량 및 구조공정학회 이사장, 중국역학학회 부이사장 및 중국고등교육연구회 부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저작으로는 <교량과 구조이론의 연구>, <강교설계>, <강결구설계원리> 등과 당산지진 이후 쓴 <공정결구내진동역학>이 있다.

<참고문헌>

1. 中國文化辭典, 施宜圓 외 3인 主編,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88
2. 華夏文化詞典, 張龍虎 외 2인 主編, 華夏出版社, 1988
3. 中國大百科全書 중 建築園林城市規劃編 및 土木工程編, 中國大百科全書編纂部,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8
4. 中國美術辭典, 沈柔熙 主編, 雄獅圖書股份有限公司, 1989
5. 中國風俗辭典, 葉大兵 외 1인 主編, 上海辭典出版社, 1990
6. 中國古代科學技術名人傳, 張潤生 외 2인 主編, 貫雅文化事業有限公司, 1990